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신학대학원대학교에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차이일 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삼천배도 소용없는 일인지요

문 삼천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원에 처음 가던 날 불상을 보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 불상이 모든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거고, 내가 억압을 통해 문화해 오며 지은 죄를 참회하며 용서받기 위해 그 앞에서 삼천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거생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동안 지어온 죄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모두에게 미안해서 용서받고 싶었어요. '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해선 아직 사무칠 정도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 대신 삼천배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건데요. 스님께서는 삼천배가 단 일배만도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요.

답 몸으로만 하는 삼천배보다 마음으로 하는 일배가 오히려 더 값진 것

둘로 보지않고 무조건 사랑해야 자비

15면에서 계속

지만 '아, 그것도 순간순간 바뀌는 일이나 어쨌든 못하는 일이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못한 것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마음에다 함께 넣어 풀려주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주는 겁니다.

부리를 돌리어서 주어야만 가지도 일사귀도 푸릇푸릇 싱싱해지며, 꽃이 만발하고 열매 또한 크게 열려서 만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익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자식만을 닮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데 어찌 나에게 나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 세상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우리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전세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나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자식들을 위해 관해할 수 있는 멋진 아버지가 되기 바랍니다.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배워서 알고 있는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제법에는 이롭하여 불일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법에 이롭하여 불일 것이 없다면 오히려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는 것입니까? 진실한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답 이 얘길 항상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나잘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형제 노릇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잘나잘나 생활하고 돌아가고 잘나잘나 그렇게 많은 모습으로 천차만별 돌아가는데 어떤 노릇할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었는지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남편이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자식이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할 것 없이 사리가 떨어지지 않고 잘나잘나 나뉘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나라는 걸 이 통해서 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노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실망한 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헛바퀴 돌아가듯 남편 노릇 했다, 자식 노릇 했다, 아버지 노릇 했다 하면서 순간순간 돌아가는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어찌 볼을 게 있었습니까.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볼을 게 없을 것이고, 천차만별로 바깥으로 꼬달리고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면서 나, 나, 나 이라고 돌아가면 그냥 매사에 걸려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을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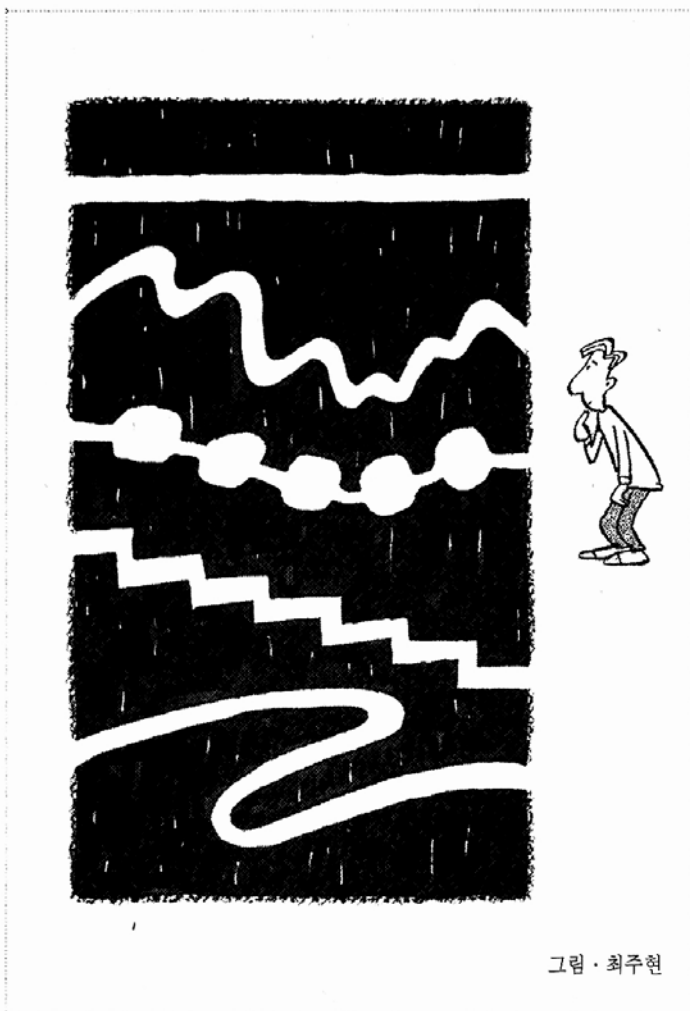
써서 소화가 잘 되면은 걸림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은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아서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육으로 잡혀먹어야 잡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당체를 생각해 본다면 수행을 누가 하는지, 내가 없으면서 내가 있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것까지 말해 놓아 본인 스스로 체득하기 바랍니다.

진정 사랑해야 결혼하는지요

문 스님, 저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여자 법우입니다. 완전한 불이 되어서 그런지 주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스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비를 실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애' 즉 이기적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기적 사랑이든 자기애적 사랑이든 다 사랑이란 말로 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답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앞뒤 계산없이 물에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이



그림·최주현

내가 '空' 함을 알면 붙잡고 꼬달릴 게 없어 몸으로 한 삼천배보다 마음의 일배 더 중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 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요. '남편이 나를 싫다고 할 때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된 바 쥐라.' 또 아내가 싫다 하면 바 쥐라, 싫다 하는 걸 붙들고 생전 살아봤자 그 타령이니까 사랑하면은 도리어 바 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꼭 자비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아무 경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조건 없이 차비를 주는 게 자비입니다. 또 셋방을 얻을 돈이 없어 거리로 나왔을 때 누가 조건 없이 누를 방을 마련해 준다면 그게 자비입니다. 조건 있는 거는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착을 가진다면 자비의 사랑이 못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조

건 있는 것을 붙이거든요. 무일 바라고, 무일 바라고 '저놈이 잘 돼야 남 보기에 도 부끄럽지 않을 텐데...' 하고 기대하는 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비가 못되죠.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마음을 돌리질 못해서 오히려 자식들한테 해가 가게끔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서 그렇지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부처님들이 못 중생을 나 아님이 없이 사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작고 클 뿐이죠. 부처님께서 하듯해 거어가는 별래 해도 나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내 아픈 아님이 없이, 내 자리 아님이 없이, 내가 놓는 생각이 없이, 모두가 내 아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자비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왜 나? 수억억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로 들고 나는 그 도리를 알아서, 이걸 세세하게 다 알려면은 복잡하니까 모든 것을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에 뇌라, 거기다 맡겨 놓고 진행되는 걸 지켜봐라, 그렇게 되면 실험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하게 되면

은 그것이 바로 참선의 직속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사랑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비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리도 알 수 있게 되니 항상 생활하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하면 그 소신도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이 잘 돌리지 않아요

문 마음공부를 한 지 햇수로는 일년 이다 되어 갑니다. 마음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면서도 살다보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꼭 돌리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음의 일인데 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답 우리에게는 천차만별의 마음의 길인데도 어떤 길은 아주 평화롭고 슬마시고 추후고 이생이 다 가기 전에 놓고 향락으로 사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길은 아주 험난하고 골짜기나 깊고, 죽은 사람의 뼈, 축생들의 뼈, 사람들의 해골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어 그런 걸 밟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걷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치워야 그 마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면서 가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도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다 한 곳에다가 삼취를 해서 마다하지 말고,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무뎠푸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없는 걸 찾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치우고 가라는, 이것을 잘 명심해서 내게 닥쳐오는 마음들을 해결해 간다면, 그렇게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그냥 그 마음의 길에서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괴로운 마음을 울라오면 그것도 '아, 내 안의 스승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알게 해주는구나' 하고 그 괴로운 자체를 맡겨버리세요. 그러다보면 그 괴로움이란 것이 내 몸을 바가 없는 공한 것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모두 한생각의

이라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백팔배, 삼천배를 하고 정근을 한다 해도 일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 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 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도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불·법·승에 귀의할 줄도 알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성부처여,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한 생각, 또는 자기 한 생각의 움직임, 이게 자성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물이 움직여가는 것이 삼함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성삼보에 귀의한다는 거죠. 그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불(佛)도 내 생명과 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법당에 와서 절할 때 일정을 하든지, 삼경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법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도 부처님 법 몸과 같고, 저렇게 앉아계시는 형상과 내 모습이 틀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들어오시는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저절로, 자신으로 한데 합치라는 말입니다. 항상 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관해서 직접 체험하고 또 실험해 보아야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보살들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약사나 하는 명호도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의 보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날 이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아니 그 마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 재력을 가지고 참나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고, 항상 고통을 받고 끝간 데 없이 유전이나 인과, 그 모든 것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 일배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근본에 다한다면, 또 삼천배를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지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그렇게 체험을 하게끔 마음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가까운 인연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1 288쪽
값 6,000원
에이이